

함평군,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도로보수원 등 현업근로자 30여 명 대상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 초빙 진행

함평군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26일 "도로보수원 등 현업근로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제1차 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환경미화, 도로보수, 청사경비 등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

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안전보호구 착용법부터 유해·위험 환경 내 작업관리 요령 등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다뤘다.

군은 27일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질환 관리 등 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군, 벼 멸구류 방제 당부

국지적 발생...예찰 및 방제 철저

영광군은 관내 해안가 중심으로 벼 재배 필지에서 벼 멸구류 해충이 국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최근 태풍 발생 및 저기압 기류 형성에 따라 바람을 타고 관내에 벼 멸구류 해충이 유입된 것으로 보여지며, 벼 멸구류는 벼의 줄기에 구멍을 뚫어 흡즙하여 줄기 전체를 고사시키는 해충이다.

벼 멸구류는 주로 벼대 밑부분에 서식하기 때문에 벼대 아래쪽까지 약제가 충분히 묻도록 충분한 약제를 살포해야하며, 벼의 수확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준수하여, 약제를 선정하고 방제해야 한다.

고윤자 농업기술센터장은 "관내에 국지적으로 벼 집중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늦게 심은 논, 2모작 재배지, 수확이 15일 이상 남은 포장은 사전 예찰을 실시하고 병해충 방제에 철저히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350-5579)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연 기자



목포뮤직플레이, 신개념 음악체험시설 선보인다

인공지능피아노·발건반 대형 플로어 피아노 설치...DDR로 추억 소환

경연, 공연, 댄스 등이 어우러진 융복합형 축제인 목포뮤직플레이가 색다른 음악체험 시설을 선보인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갯바위 문화타운에서 열리는 목포뮤직플레이는 음악축제로서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음악과 관

련된 체험시설에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

갯바위 원형분수대 주변 부스테인너에서 설치될 '인공지능피아노'는 악보를 그려 시스템에 입력하면 피아노가 자동으로 연주한다. 카이스트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 대용량으로 우리나라에 단 1대 뿐인 AI 피아노이다.

가로 278cm, 세로 150cm의 피아노 건반 위를 올라가 발로 밟으면서 연주하는 발건반 대형 플로어 피아노도 선보인다.

추억을 소환하는 체험기구인 DDR, 음악편 프를 설치해 음악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피아노는 백방으로 노력해서 유치한 결과다. 뮤직플레이에서 색다른 경험과 신나는 체험으로 멋진 멋진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심쿵 설렘, 청춘남녀 만남의 날' 참가신청 접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전남 무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씩씩 킁을 수 있을까?

무안군이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춘 남녀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심쿵 설렘!! 청춘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무안군 소재 직장인 또는 무안에 주소를 둔 직장인 27세 이상 35세 이하 청춘 남녀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각 15명씩 30명이며 버스투어, 짝라인 탑승, BBQ 맥주파티, 불명, 카라반 캠핑, YD페스티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남과 소개 레스토랑에서 최종 커플을 선택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참가신청서(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와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구비해 10월 14일까지 우편, 이메일 제출하거나 군청 미래성장과 인구정책팀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수정 미래성장과장은 "많은 청춘남녀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사랑을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신안군 정원문화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신안군 정원정책수립 및 기본방향 제시에 앞장



신안군은 지난 20일 신안군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안군이 가장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늘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 조성을 위해 한층 더 심도있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정한 신안군 군립정원 지정 및 정원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안지환 조경학과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간 신안군

정원정책과 기본방향 등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신안군 정원의 가치, 필요성 등 인문학적인 교육 뿐만 아니라 양묘 교육, 정원해설사, 군립정원사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의 안건으로 제출된 분재정원, 툐림·홍매화정원, 수국정원 군립정원지정에 관한 건은 면적, 완성도 등을 검토한 결과 군립정원으로 지정되기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통과되었다. 또한 1004섬 신안군의 정원의 날로 지정된 10월 4일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제1회 정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도시정원과 농어촌, 특히 섬의 정원은 차별성이 부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리가 꿈꾸는 신안군의 정원은 단순한 정원이 아닌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공간이자 자랑스런 관광자원으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계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그리고 섬터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2억평면의 1004섬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1섬 1테마정원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신안=이택주 기자

영암군, 2023년부터 '생활임금' 도입 결정

시급10,100원...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적용

영암군은 지난 1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480원(4.98%) 인상된 10,100원으로 2023년도 영암군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광역시 14, 기초 101)에서, 전남은 도청과 목포·여수·나주·해남이 운영하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